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인격신에게 귀의해야 한다.
2.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
3. 만물의 원인인 신을 통해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여 최고선에 도달해야 한다.
5.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할 신(神)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만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려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1.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객관적인 실존을 확립해야 한다.
2. 철학의 과제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3.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정해져 창조된 존재이다.
5. 인간은 종교적 단계에서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3.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性)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화할 수는 있다. 노력을 쌓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노력으로 습속(習俗)을 바로 잡아 가면 성을 교화하게 된다.

- 1.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적 단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2.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예(禮)를 통해 법도를 익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4. 하늘을 인간에게 본성과 규범을 부여하는 도덕적 실체로 본다.
5.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선험적(先驗的) 도덕 능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4. (가)의 갑, 을은 조선 시대의 유교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람의 성(性)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니, 선을 좋아함으로 해서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게 되며, 악을 싫어함으로 해서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게 되며, 그 사심(四心)이 있으므로 해서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가) 을: 성(性)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정(情) 또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어디에서 발하는가? 인의예지라는 성에서 발한다. 희·노·애·구·애·오·욕은 어디에서 발하는가? 외물(外物)이 사람의 형기(形氣)에 접촉하여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나오는 것이다.
(나) Diagram with two overlapping circles labeled 갑 and 을. Region A is the left part of the '갑' circle, region B is the intersection, and region C is the right part of the '을' circle. Legend: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사덕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ㄴ. B: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ㄷ. B: 인의(仁義)의 실현을 위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ㄹ. C: 사덕은 마음의 본체인 성이고 사단은 마음의 작용인 정이다.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5.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하나의 마음[一心]이란 무엇인가? 깨끗하고 더러움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마음은 언어와 생각을 초월했으니, 무엇이라고 할 수 없어 억지로 하나의 마음이라고 한다.
을: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오랫동안 익혀 온 기운(習氣)을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고 점차 익히어 공을 이루어야 한다.

<보기>
ㄱ. 갑은 불성을 깨닫는 즉시 완성된 부처가 된다고 본다.
ㄴ. 갑은 여러 종파의 주장들을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고자 했다.
ㄷ. 을은 단박에 불성을 깨친 뒤에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갑, 을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6.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명(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으며,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을: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 있게 되었고, 덕을 잃은 후에 인(仁)이 있게 되었고, 인을 잃은 후에 의(義)가 있게 되었고, 의를 잃은 후에 예(禮)가 있게 되었다. 예는 충(忠)과 신(信)이 희박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혼란의 시초이다.

<보 기>

ㄱ. 갑은 예치(禮治)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ㄴ. 을은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추구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인의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주례(周禮)를 버리고 소박하고 순수한 덕에 따른 삶을 중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부르주아가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는 공업의 진보는 경쟁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에 연합에 의한 그들의 혁명적 단결을 가져온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을 생산하는 셈이다. 부르주아의 멸망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나)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 ① (가):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가):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상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③ (나):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 일체의 사적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
- ④ (나): 급진적인 폭력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 ⑤ (가), (나): 생산 수단의 공유는 경제적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8~9] 갑은 동양 사상가, 을은 한국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천지간에는 이(理)도 있고 기(氣)도 있다. 이는 형이상(形而上)의 도로서 만물을 낳는 근본이며, 기는 형이하(形而下)의 기(器)로서 만물을 이루는 재료이다. 이와 기라는 것은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체이다. 다만 사실상으로 보면 이와 기는 서로 뒤엉켜 있어서 각각 떨어져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을: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까닭에 마치 하나의 사물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기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며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이다. 무형 무위이면서 유형 유위의 주재가 되는 것은 이요, 유형 유위이면서 무형 무위인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이 기이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모든 이치를 마음 밖에서 구하면 안 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이(理)의 본연인 선의 실현을 위해 기질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이와 기 모두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개 치양지(致良知)의 학문은 본심을 직접 가리켜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성인(聖人)의 길로 들어서게 해 준다. 참된 나[眞我]가 되기 위해서는 양지로 주재를 삼아 복잡하고 변화하는 사물들 가운데 처하여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부림을 당하지 않으며, 그것들에게 명령하고 그것들을 제재해야 한다.

- 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향이 인간의 본성이다.
- ② 마음과 이치는 하나이므로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 ③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 ④ 인간은 누구든지 성인(聖人)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 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형성된다.

10.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이성적 피조물이 서 있는 윤리적인 단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다.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도덕 법칙을 의무에서 준수하는 것이지, 임의의 경향성에서라든가 또는 명령 없이 저절로 하고 싶게 된 노력에서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을: 관계를 중시하는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감정을 멀리하고 의무 의식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반대로 배려의 관점에서 행위하는 사람은 자연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감에 호소한다. 자연적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도 힘을 준다.

- ① 갑은 도덕적 정서에 기초한 정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가 도덕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 판단이 행위의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11.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할 수 없다.

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숙명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주지 않는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였고,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은둔자적 인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을은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였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마음의 평온함과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한 개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그는 그 국가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즉, 일정한 정부하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오직 자유인의 동의만이 그를 그 정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간에 충성을 다짐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행정관에 대한 충성이 결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되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얻는 이익에 있을 뿐이다.

〈보 기〉

ㄱ. 갑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으로부터 정치적 의무가 비롯된다고 본다.  
 ㄴ. 갑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본다.  
 ㄷ. 을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자연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국가가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만 국민은 정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참된 사람[真人]은 잘못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잘 되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물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공덕을 의식하지 않으며, 명예를 무시합니다.

을: 인(仁)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고, 의(義)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인에 살고 의를 행한다면 큰 사람[大人]이 할 일은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 ① 갑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양능(良能)을 지닌다고 본다.  
 ② 갑은 도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별적 지혜를 강조한다.  
 ③ 을은 도덕적 교화를 통한 성정(性情)의 변화를 강조한다.  
 ④ 을은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한다.  
 ⑤ 갑, 을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동의될 것이지만, 보다 분명하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된다면, 아마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인간적인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일 것이다. 또, 만약 덕이 여럿이라면 그중 최상이며 가장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인간적인 행복일 것이다.

- ① 옳은 행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위를 한다.  
 ②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절제의 덕을 타고난 사람이다.  
 ③ 선함 자체는 현실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④ 행복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다.  
 ⑤ 행복한 사람은 이성적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 유덕한 사람이다.

1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회적 가치들이 각각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p> <p>을: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p>
(나)	

〈보 기〉

ㄱ. A: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적합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ㄴ. B: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가 있는가?  
 ㄷ. C: 사회적 지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ㄹ. C: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 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정적인 성과와 결과보다는 성장과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된다. 단번에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버린 목적으로서의 건강이 목적이나 선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의 증진, 즉 지속적인 과정이 목적이요 선이다.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r> <tr><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A)</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B)</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참된 앎을 바탕으로 덕을 쌓아갈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음. 소크라테스는 ○○○○○○을 주장함.                  (B): 감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정신 작용. 주인 ○○</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② 불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단이다.
- ③ 절대적이지 않으며 알 수도 없는 것이다.
- ④ 방법적 회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받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려면 열등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은 수준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보 기>

- ㄱ. 갑은 도덕이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에 근거한다고 본다.
- ㄴ. 갑은 보편적 진리를 얻기 위해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ㄷ. 을은 도덕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본다.
- ㄹ. 갑, 을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한 도덕적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8.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는 외적인 자기 일의 수행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일의 수행, 즉 참된 자기 자신의 일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음계의 세 음정처럼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의는 이들 세 부분 간의 일종의 내분이며 영혼 전체에 대한 일부의 모반임에 틀림없다.

- ① 통치자가 지녀야 할 유일한 덕목으로 지혜를 제시한다.
- ② 철학과 정치권력의 분립을 이상 국가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 ③ 세계를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로 규정한다.
- ④ 이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세계 안에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⑤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할 때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1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이데아는 무(無)에서 만물을 창조한 신의 정신 안에 있다. 궁극적 실재는 신이며,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우리는 믿기 위해 알려고 하지 말고 알기 위해 믿어야 한다.

을: 자연은 인간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만 은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임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소명(召命)이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 ① 갑은 신을 실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성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악을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인해 신이 부여한 본성이 파괴된 상태라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의 구원이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직업 소명설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가치를 제공한다.
- ⑤ 갑, 을은 완전한 행복은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신 수양, 사리 연구(事理研究), 작업 취사(作業取舍)의 삼학(三學)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진리를 얻어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靈肉雙全) 한다.

을: 저마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아[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교화가 이루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 ① 갑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 ② 갑은 유교적 가치를 근본으로 하여 서양 문물을 이용하고자 했다.
- ③ 을은 인간 존중을 토대로 신분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 ④ 을은 우주의 근본 원리로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제시하였다.
- ⑤ 갑, 을은 사후 세계에서의 복을 위하여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하였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